III

특별기획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자리잡은 홍콩 사이버포트(Cyberport)

홍콩주재원 이은석 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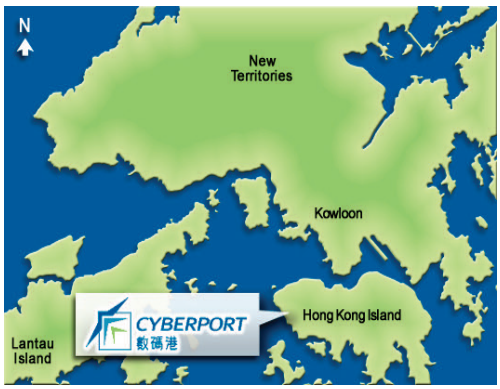
홍콩 사이버포트는 홍콩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디지털 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육성, 창업가 지원 및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핵심전략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포트는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스타트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 기술 및 자금 등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사이버포트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들의 생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이버포트를 통해 홍콩의 유니콘 기업들이 탄생되고 핀테크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사이버포트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제도 등은 우리나라의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에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이버포트의 개요 및 발전과정)

홍콩 섬 남서부 폭푸람(Pok Fu Lam)지역에 위치한 사이버포트[1](Cyberport, 數碼港)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단지이자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2](start-up) 지원기관이다. 사이버포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활동영역으로 하는 민간 투자회사 Pacific Century Group이 1998년 9월 홍콩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홍콩 정부가 컨설팅을 거쳐 1999년 3월 예산안 편성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이 추진되었다.

홍콩 사이버포트 위치



자료: Wikipedia

사이버포트는 홍콩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디지털 기술산업(digital tech Industry) 육성을 지향한다.[3] 이를 위해 ICT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 증진, 최신 ICT 기술 소개 및 네트워크 형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핀테크(FinTech), 전자상거래(eCommerce),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Wearables), 빅데이터·인공지능 등을 육성하여 홍콩을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1) 사이버포트는 홍콩 정부에서 100% 소유하고 있는 Hong Kong Cyberport Management Corporation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2)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의 기업을 의미한다.
3) 사이언스 파크(Hong Kong Science Park) 또한 홍콩의 혁신·기술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산업단지다. 사이버포트가 주로 디지털 기술의 개발과 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이언스 파크는 하드웨어와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콩 사이언스 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보고서 2018년 9월호에 소개되어 있다.

사이버포트는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04년까지 156억 홍콩달러(약 2조 3천억원)를 투입하여 건물 4개동과 5성급 호텔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었으며, 2005년 10월에 Cyberport Digital Entertainment Incubation-cum-Training Centre를 개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인큐베이션(스타트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게임 및 애니메이션 관련 스타트업 위주로 시작하였다가 최근에는 핀테크, 스마트 리빙, 디지털 엔터테인먼트·e-스포츠, 인공지능·빅테이터,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등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현재 사이버포트에는 1,500여개 기업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400여개는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자산관리 서비스 등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다. 특히 Microsoft, Lenovo, IBM 등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여 스타트업들이 이들과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사이버포트 전경

자료: 사이버포트

(사이버포트의 핵심전략)

사이버포트는 ①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육성(Cyberport Youth), ②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Cyberport Entrepreneurs), ③ 전략적 파트너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Cyberport Partners)의 3가지 핵심전략(strategic pillars)을 통해서 홍콩을 글로벌 디지털 기술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핵심전략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육성

사이버포트는 혁신 및 기술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TCPIP: Tech Career Placement and Internship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IT기업들과 청년들 간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턴십 프로그램은 핀테크, e-스포츠·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시티, 기업경영 관련 프로젝트 등 4개 분야에 대해 8~12주간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외 IT기업에서의 근무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7개 협력대학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CUPP: Cyberport 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me)을 통해 해외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Entrepreneurship Boot Camp에 학생들의 참가를 지원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산업내 전문가로부터 멘토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CUPP)은 주로 핀테크 관련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홍콩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홍콩금융관리국[4](HKMA)이 멘토십 형태로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사이버포트는 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 창업자가 신규 프로젝트나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펀드(CCMF: Cyberport Creative Micro Fund)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 펀드는 6개월 이내에 세 단계를 거쳐 총 10만 홍콩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1만 홍콩달러, 사업계획서를 구체화시키는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시 각각 4.5만 홍콩달러를 받게 된다. 사이버포트에 따르면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CUPP)에 참여한 팀의 절반 이상이 마이크로 펀드를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포트의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1](CUPP) 현황

	2016	2017	2018
CUPP 신청 팀수	22	32	36
CUPP 승인 팀수	20	21	19
CCMF로의 이행 팀수	10	11	13

주: 1) CUPP는 7개 협력 대학의 재학생과 졸업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들이 팀(5명 이하)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음
자료: 사이버포트, DATA.GOV.HK

②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이버포트는 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CIP: Cyberport Incubation Programme)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위한 것으로 일정한 자격요건[5]을 갖추거나 마이크로 펀드를 지원받았던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다. 사이버포트는 학계, 금융 및 산업계 등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기업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 다양한 전문서비스와 함께 최대 50만 홍콩달러의 자금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이버포트는 임대료가 비싼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부터 스마트 스페이스(Smart-Space)라는 공유사무실(co-working space)을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구룡(Kowloon) 지역의 췬완[6](Tsuen Wan)에 젊은 사업가들을 위해 설계된 공유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신청자격은 창업 7년 이내, 창업자의 나이 18~35세인 경우이다.

다음으로 기술인재 인정제도(TechTAS: Technology Talent Admission Scheme)를 도입하여 홍콩 스타트업들의 IT 관련 해외 우수 인재 고용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IT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외 및 중국본토에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인력들을 고용할 경우 홍콩 정부가 비자신청 등에서 우대해주는 제도이다.

③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이버포트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서비스(Cyberport Collaboration Service)를 통해 스

4)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3월에 Fintech Facilitation Office(FFO)를 설립하였는데 FFO가 사이버포트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CUPP)에 멘토십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5) 홍콩에서 디지털 기술기업(digital tech company)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12~18개월 내에 마케팅이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사업계획 등이 필요하다.
6) 췬완지역의 공유사무실 면적은 약 1,800㎡로 폭푸람지역의 공유사무실(약 11,000㎡)보다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타트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파트너로는 Accenture, Lenovo, Microsoft, NetDragon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크워크를 통해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컨설팅 및 비즈니스 기회 등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사이버포트는 중국 ICT 기업들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1년 상하이 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를 매개로 홍콩의 ICT 기업들은 중국 본토 시장 진출시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ICT 기업들도 사이버포트와의 협업 플랫폼을 이용하여 홍콩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얻는 등 두 도시 간 디지털 기술산업의 비즈니스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7]

또한 액셀러레이터[8] 지원 프로그램(CASP: Cyberport Accelerator Support Programme)을 통해 인큐베이션에 참여하고 있거나 졸업한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들 기업은 액셀러레이팅 참가를 위한 등록비, 사무실 임대료, 해외 출장비 등 관련 경비의 50~75%까지(최대 30만 홍콩달러)를 지원받는다.

마지막으로 시장개척 지원제도(MDSS: Market Development Support Scheme)가 있다. 이는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마이크로 펀드를 지원받았던 기업들이 중국본토 및 해외시장 진출시 전시회 참가비, 출장비 등 관련 경비의 75%까지(최대 20만 홍콩달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홍콩 사이버포트의 핵심전략 및 세부 프로그램

핵심전략	세부 프로그램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갈 차세대 육성	- 청년 취업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 -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 - 마이크로 펀드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 공유사무실 운영 - 기술인재 인정제도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서비스 -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 - 시장개척 지원제도

자료: 사이버포트

(사이버포트의 주요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포트는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포트는 마이크로 펀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 시장개척 지원제도를 통해 업체당 최대 110만 홍콩달러(약 1억 7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이후에도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크로 펀드(Macro Fund)를 조성하여 스타트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매크로 펀드는 홍콩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2억 홍콩달러를 재원으로 활용하여 민간 창업투자 펀드들과 공동으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다. 매크로 펀드의 투자한도는 기업당 최대 2천만 홍콩달러이며 공동 투자비율은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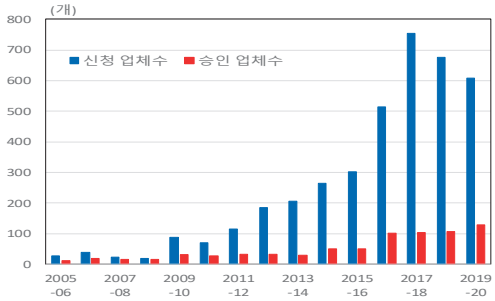
7) Startup Genome의 Global Start-up Ecosystem Ranking(2019년)에 따르면 홍콩은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계성(connectedness) 부분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 액셀러레이터란 기존 벤처캐피탈과 다르게 창업 초기단계 기업에 소액을 투자한 뒤 전략·네트워킹·운영 등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전수해 주는 기업을 말한다. 단순히 자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보육 전문가 집단이다. 소액이지만 지분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인큐베이터와도 구분된다.

홍콩 사이버포트의 성장 단계별 자금지원 프로그램

자료: 사이버포트

홍콩 사이버포트의 인큐베이션 신청 및 승인 업체수[1)]



주: 1) 회계연도(매년 4월~익년 3월) 기준
자료: 사이버포트, DATA.GOV.HK

홍콩 정부에 따르면 사이버포트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는 매년 약 100여개인데, 사이버포트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3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들의 비율(survival rate)은 72%(2019년 기준)에 달한다.[9)] 이와 같이 사이버포트의 스타트업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사이버포트가 구축하고 있는 Enterprise Network, Technology Network 및 Investor Network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에 필요한 시장정보, 기술 및 자금 등을 적시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이버포트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해 옴에 따라 최근 사이버포트 인큐베이션 신청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콩 정부는 더 많은 기술기업 및 스타트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55억 홍콩달러를 투입하여 2024년까지 사이버포트 건물 1개 동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평가 및 시사점)

홍콩은 간소화된 규제 등으로 인해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는 적합하지만 협소한 내수시장으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홍콩 정부는 사이버포트 설립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스타트업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스타트업들의 중국본토, 동남아시아,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이버포트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는 KLOOK, GOGOVAN, TNG Fintech Group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10)]

또한 사이버포트는 핀테크 커뮤니티를 형성시켜 홍콩의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홍콩에서 인가받은 8개 인터넷전문은행 중 2개(ZhongAn Virtual Finance, Welab Digital), 인터넷전문보험사는 인가받은 4개[11)]

9)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 창업지원기업의 3년 생존율은 68.1%, 5년 생존율은 53.1%에 불과하다(「창업지원기업 이력조사」 결과, 창업진흥원).
10) KLOOK은 여행 액티비티(activity)를 중심으로 한 예약 서비스를, GOGOVAN은 소화물을 위주로 화물차가 필요한 화주와 물량이 필요한 차주를 연결해 물류 서비스를, TNG Fintech Group은 전자지갑(e-wallet), 모바일 송금 및 글로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사이버포트 인큐베이션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중국본토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모두 사이버포트가 조성한 핀테크 관련 커뮤니티에서 나왔다. 홍콩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및 인터넷전문보험사의 출발이 늦었으나 2018~20년 중 12개를 인가해 주면서 홍콩은 핀테크 관련 서비스의 새로운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홍콩의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이버포트가 지속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Fintech Ecosystem)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홍콩 정부가 사이버포트 스타트업 지원제도를 통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사례는 우리나라의 인큐베이션 센터 운영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자료는 홍콩 사이버포트 홈페이지(www.cyberport.hk), 홍콩 창신과기국(創新及科技局, Innovation and Technology Bureau) 홈페이지(www.itb.gov.hk),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등 언론사 기사 및 홍콩 사이버포트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1) Bowtie(2018.12월), Avo(2019.10월), OneDegree(2020.4월), ZhongAn Insurance(2020.5월)